

油價下落과 国内經濟展望

韓國開發研究院

I. 對外與件

第 2 次 石油波動 후 3 年餘에 걸친 安定化 努力에 힘입어 世界各國, 특히 先進諸國은 物價面에서 刮目할 만한 成果를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이들 先進國家들의 強力한 緊縮基調의 堅持 및 이에 따른 高金利는 世界 景氣의 長期沈滯와 深刻한 失業問題를 惹起시켰으며, 이는 對外的으로 輸入規制의 強化와 더불어 開途國의 輸出不振 및 外債償還不能事態 등으로 國際金融市場의 不安을 高潮시켰다.

이와 같은 國內外的인 經濟與件의 深刻性을 反映하여 美國은 昨年 下半期부터 通貨政策基調를 다소 緩和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후 金利가 상당히 下落되고 또한 昨年 7 月 1 日부터 實施되는 두번째의 個人所得稅 10% 引下와 더불어 消費支出의 增加가 美國 景氣回復을 主導할 것으로 予想되었다. 그러나 失業率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消費者들이 未來를 不安해 한 나머지 所得稅率의 引下에도 불구하고, 消費支出을 늘리지 않아 企業의 在庫調整이 不可避해짐으로써 景氣回復이 遲延되었다. 또한 다른 先進諸國들도 景氣沈滯가 長期化되고 失業이 계속 增加하여 自國 일자리保護를 위한 輸入規制를 強化함으로써 世界 交易量의 增加가 實現되지 못했다.

今年에도 世界景氣가 다소 回復될 것으로 보이나, 失業率은 여전히 높은 水準에 머물 것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先進國들은 當面한 失業問題의 深刻性에 비추어 볼 때, 景氣回復을 위한 노력을 좀 더 積極化하게 될 것이며, 國際原油價格의 下落으로 先進國 物價安定 및 實質

購買力의 增加로 景氣回復이 促進되고, 이는 또한 非產油開途國의 石油輸入負擔 輕減 및 輸出의 增大를 誘發시킴으로써 世界經濟의 回復에 상당한 寄與를 할 것으로 予想된다.

그러나 美國의 實質金利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水準에 있으며, 今年에 2,000億달러 水準에 달할 것으로 予想되는 財政赤字가 短期間에 大幅 縮小될 可能性이 稀薄할 것으로 미루어볼 때 實質長期金利의 下落勢는 當분간 크게 期待하기 어려울 것으로 予想된다.

이렇게 볼 때, 1983年의 先進國 經濟成長은 約 2%, 世界交易量 增加率は 3~4% 水準을 期待할 수 있으며, 1984년에는 成長勢의 擴散과 더불어 成長은 約 3%, 世界 交易量 增加는 5% 水準에 달할 것으로 予想된다. 한편 1982年 約 7.8%나 下落한 輸入單價는 國際原油價格이 今年에 約 13%정도 下落하여 原油를 제외한 其他 原資材 價格의 上昇에도 불구하고 今年에는 約 0.5% 水準의 下落이 予想된다.

(表-1) 對外與件의 展望

(단위 : %)

	1982	1983	1984
世界 交易量 增加	0.0	3.5	5.0
先進 國 成長	- 0.1	2.0	3.0
輸入 單 價 上 昇	- 7.8	- 0.5	4.8
(原 油)	- 3.7	-12.5	0
(原 油 除 外)	- 9.2	3.0	6.0
輸出 單 價 上 昇	- 4.1	2.0	4.0
國 際 金 利	13.2	8.7	8.7
(유로달러, 3個月物)			
美달러/SDR換率(年末)	- 5.2	5.0	3

来年에는 世界景氣回復의 擴散과 더불어 非原油 原資材價格의 上昇으로 輸入單價는 4~5% 水準의 上昇이 期待된다. 國際原油價格은 来年에 世界景氣回復勢가 다소 加速化된다 하더라도 油價上昇이 招來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주된 理由는 OPEC의 過剩生産能力과 非OPEC의 生産이 增大되어 世界全體로 볼 때, 供給不足을 招來할 可能性이 낮기 때문이다.

1982年 下半期 以後 美國의 通貨政策의 緩和에 따라 金利는 상당히 下落하였다. 今年에도 通貨政策을 다소 緩和할 것으로 보이며 予想되는 景氣回復도 緩慢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企業 및 家計部門의 資金需要의 急激한 增大는 期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로달러 金利를 基準으로 한 國際金利는 1982年 平均 13.2% 水準에서 1983年, 1984년에는 約8.7% 水準으로 下落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 밖에 美國의 달러貨는 美國과 餘他 主要 交易相對國과 의 金利差가 좁혀지고, 油價引下에 따른 円과 마르크貨의 相對的 強勢를 反映하여 다소의 弱勢를 보일 것으로 予想된다.

이와 같은 世界經濟 回復을 前提로 國內經濟 予測을 함에 있어서 國際原油價格은 現在 基準 油價가 今年에 平均 約 13% 下落하고, 来年에는 이 水準에서 머무를 것으로 假定하였다.

II. 成長展望

昨年 下半期 GNP는 前年 同期對比 5.8%의 着實한 增加를 示顯함으로써 1982年 全體로서는 5.4%의 實質成長을 이룩하였다. 需要面의 GNP構成으로 보면, 1982年の 成長은 內需增加가 主導的인 役割을 했음을 알 수 있다. 總消費는 實質賃金の 增加를 反映, 昨年 下半期에 前年同期에 比하여 5.3%의 增加를 보인 反面, 固定投資는 活潑한 住宅投資 및 政府建設에 힘입어 予想보다 높은 增加를 보였다. 商品輸出은 世界經濟의 沈滯를 反映, 不振함을 면치 못했으며 商品輸入 또한 設備投資 및 輸出不振을 反映하여 그 增加率이 予想을 훨씬 下廻하였다. 1983年과 84年 GNP 成長은 各各 7.8% 및 8.3%로서 從前 展望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予想

된다. 그 주된 理由는 國際原油價格의 下落으로 世界經濟의 回復이 予想보다 다소 促進됨으로써 輸出이 今年보다 더 늘어나고 이것이 成長에 보다 큰 몫을 할 것으로 期待되기 때문이다. 商品輸出의 實質增加率은 今年 上半期에는 予想보다 不振할 것으로 보이나, 下半期부터는 先進國의 景氣回復 擴散을 反映하여 더욱 빨리 늘어남으로써 1983年 全體로 9.2%에 이르며, 来年에는 世界景氣回復의 加速化와 더불어 11% 以上の 實質增加率을 示顯할 것으로 展望된다.

지난 3年間 沈滯를 면치 못했던 總消費支出은 今年 上半期에는 4.6%, 下半期에는 5.0% 水準으로 回復되고, 来年에는 全般的 景氣好轉을 反映, 5.6% 水準의 增加가 予想된다. 이와 같은 消費支出의 增加는 昨年の 實質賃金의 增加가 7%에 達하였을 뿐만 아니라, 物價安定으로 家計部門의 實質所得이 상당히 增加되었고, 通貨供給의 增大로 流動性이 好轉됨으로써 實質消費가 自動車 및 家電製品 등의 耐久財 消費回復으로 擴散되고 있기 때문이다.

(表-2) 成長展望

(단위: 增加率, %)

	1982			1983			1984
	上半期	下半期	年間	上半期	下半期	年間	
實質GNP	4.8	5.8	5.4	6.9	8.5	7.8	8.3
總消費	1.7	5.3	3.6	4.6	5.0	4.8	5.6
固定投資	10.7	12.2	11.5	10.5	9.2	9.7	9.2
商品輸出	3.8	1.9	2.8	5.6	12.4	9.2	11.3
商品輸入	-2.2	4.8	1.4	7.2	9.5	8.4	9.2

이 밖에도 固定投資는 住宅建設投資가 今年에도 활발히 進行되고, 下半期 및 来年에는 輸出增加의 加速化로 景氣回復이 全般的으로 擴散됨으로써 設備投資가 誘發되며 政府投資도 建設部門을 中心으로 꾸준히 增加勢를 持續함으로써 今年 平均 固定投資 增加率은 9.7%, 来年에는 9.2% 水準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III. 國際收支展望

昨年에 이어 今年 및 来年에도 經常收支는 改善되어, 그 經常收支赤字는 約20億달러 水準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今年 商品輸出은 前년에

比하여 實質增加率이 9.2%, 輸出單價는 約 2% 上昇하여 輸出額이 234億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商品輸入은 國際油價의 下落을 반영, 輸入單價가 約0.5% 下落되며, 商品輸入量은 約 8.4% 增加하여 名目輸入額이 約252億달러 水準에 머물 것으로 予想된다. 따라서 貿易収支赤字는 今年에 約18億달러 水準으로서 去年에 比하여 6億달러 가량 改善될 것으로 보인다.

今年的 輸出額이 從前 展望보다 낮아진 主原因은 世界景氣, 특히 先進國의 經濟回復이 遲延됨으로써 國際市場에서의 價格競爭이 深化되고, 交易對象國의 輸入規制가 強化됨으로써 今年 上半期中의 輸出이 予想보다 不振한데 있다. 또한 實質商品輸入增加率이 實質商品輸出增加率을 훨씬 下廻하는 것은 產業施設投資가 相對的으로 부진하고, 重化學工業의 發達에 따라 일부 工業原料의 輸入代替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貿易外収支는 國際金利 下落에 따라 外債利子支給負擔이 크게 緩和될 것이나 油價의 引下로 中東產油國의 外換收入이 減少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建設輸出에 의한 外換收入이 縮小됨으로써 去年 對比 約 1億달러 정도 惡化될 것으로 보인다.

1984년에는 先進國 景氣回復이 加速되고, 이는 또한 世界經濟 全般의 回復으로 擴散됨으로써 原油를 제외한 原資材價格이 6% 정도 上昇하여 輸入單價上昇率이 4.6% 水準에 達하는 반면, 輸出單價 上昇率은 약 4%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따라 1982~83年 改善되어 오던 우리 나라의 交易條件은 다소 惡化될 것으로 予想된다. 實質商品輸出은 1984년에 約 11.3% 增加하여 輸出額이 約 271億弗 水準에 달하며, 實質商品輸入은 約 9.2% 增加하여 輸入額이

288億달러에 그침으로써 貿易収支赤字는 17億달러 水準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IV. 物價展望

1981년까지만 해도 上昇率이 20%를 上廻하던 都売 및 消費者物價는 81年 下半期부터 현저한 安定勢로 돌아섬으로써 1982년에는 年平均 各各 4.7%, 7.3%의 上昇에 그쳤다. 이와 같은 物價 安定의 主原因은 물론 需要萎縮에도 그 要因을 찾을 수 있으나, 石油를 비롯한 國際原資材價格이 下落勢를 持續하였으며, 또한 農產物價格이 매우 安定勢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公共料金, 金利 및 換率의 安定 또한 全般的인 物價 安定에 主要한 要因으로 기여하였다. 반면, GNP 디플레이터는 작년의 높은 賃金引上率을 반영하여 8%의 上昇을 보였다.

今年的 物價는 國內通貨部門을 통한 需要壓力과 景氣回復予想에 따른 賃金の 安定與否가 다소 不安한 變數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海外部門에서의 國際油價의 下落, 완만한 世界景氣의 回復, 그리고 世界的 인플레이期待心理의 鎮靜에 따른 기타 原資材 價格의 安定에 起因하여 小幅의 增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世界景氣回復이 더욱 加速化됨에 따라 海外要因을 통한 物價壓力은 1983년에 比하여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去年的 總通貨는 27% 增加하였으며, 이는 1982年の 經常價格 GNP 增加率 13.8%에 比하면, 상당히 높은 水準으로서 時差를 두고 人플레이要因으로 作用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去年的 획기적인 物價安定으로 人플레이期待心理가 크게 鎮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4分期부터는 第2 金融圈이 정상적인 機能을 回復하고, 政策當局이 流動性供給의 安定化 努力을 持續함으로써 對民間興信의 伸張勢가 鈍化되었으므로, 海外部門을 통한 流動性還収가 增加됨으로써 總通貨供給은 점차 安定勢를 찾고 있다. 이와 같은 流動性供給 安定化 努力이 1983, 84年에도 持續될 것을 勘案할 때 通貨側面에서 的 物價壓力은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表-3) 國際收支展望

(단위: 億달러)

	1982			1983			1984
	上半期	下半期	年間	上半期	下半期	年間	
經常收支	-7	-18	-25	-9	-11	-20	-20
貿易收支	-8	-16	-24	-8	-10	-18	-17
(輸出)	104	106	210	109	125	234	271
(輸入)	112	122	234	117	135	252	288

또한 物価를 費用側面에서 보면, 海外要因으로 1983年은 82년에 비하여 油價가 約 13% 下落하고 기타 原資材가 約 3% 上昇할 것으로 볼 때, 輸入單價는 1982년에 비하여 年平均 約 0.5% 下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84년에는 油價의 追加下落이 없다고 假定하면, 世界景氣回復에 따라 原油를 除外한 原資材價格이 年平均 約 6% 上昇할 것으로 보여 輸入單價는 約 4~5% 水準의 上昇이 예상된다.

費用側面中 国内要因을 보면, 1983년에는 国内景氣回復에 따라 企業部門에서의 利潤幅増大를 위한 製品價格上昇등 物價上昇要因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플레이션期待心理의 鎮靜에 따른 賃金 및 金利의 安定과 稼動率上昇에 따른 費用節減效果를 勘案할 때, 費用側面을 통한 物價變動要因 중 1983년에는 物價安定要因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84년에는 海外要因을 통한 費用上昇要因이 있으나 国内要因의 改善이 예상되기 때문에 都売를 除外한 物價는 1983년에 비하여 上昇幅이 다소 낮을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같은 諸般要因을 종합하여 보면, 1983年

(表-4) 物價 展望

(단위 : 上昇率, %)

	1982			1983			1984
	上半期	下半期	年間	上半期	下半期	年間	
GNP 디플레이터 ¹⁾	8.5	7.6	8.0	5.5	5.3	4.8	5.3
都売物價 ²⁾	7.1	2.4	4.7	1.4	2.2	1.8	2.8
消費者物價	10.0	4.5	7.3	4.4	4.6	4.5	3.9

〈註〉1) GNP「디플레이터」는 1975年 基準

2) 都売物價, 消費者物價는 1980年 基準의 前年同期比 上昇率임.

의 物價上昇率은 都売物價의 경우 年平均 1.8%의 上昇에 그치나, 1984년에는 2.8% 水準의 上昇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1983, 84年의 消費者物價는 各各 4.5%, 3.9%의 上昇率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위에서는 國際原油의 基準價格이 1983年 및 1984년에는 배럴당 29달러線을 維持한다는 假定下에서 우리 經濟를 展望하여 보았다. 그러나 國際油價는 世界景氣의 回復速度에 따른 需要増大與否와 産油國의 財政狀態 등을 고려하면 短期的으로 다소 더 下落할 可能性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産油國動向 □

노르웨이, 北海産原油 2.5% 引下

3月 1日부터 소급적용

노르웨이는 지난 4월 5일 北海産原油가격을 2.5% 인하했다고 노르웨이 국영 스타트 오일石油會社가 발표했다.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노르웨이의 가격조정으로 北海産原油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50센트 인하되어 29.50달러가 됐다.

노르웨이의 油價引下결정은 지난 3월 30일 英國국영석유공사(BNOC)의 원유가격 인하 조치에 뒤따른 것이다.

노르웨이의 北海油田원유생산량은 英國의 절반수준인 하루 평균 약50만배럴에 머물고 있다.